

## 말라기 강해 (4)

## 하나의 관계를 만드신 한 분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가 깨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말라기 2:10-17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 혼인과 가정에 관한 변화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직업이 바뀌고 사회 구조가 바뀌면서 직장 여성의 숫자도 늘어나고 1인 가구의 숫자도 급증하고 있고, 비혼(非婚)이라는 말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점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비혼주의자로 잘 살게요』 하는 책이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수익 벌어 양육비로 쓰기보다 연 4-5% 수익 나는 상가를 사서 노후 대비부터 한다” 는 말이 그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율도 점점 높아지고 동성애를 거리낌없이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혼인과 가정의 제도가 이처럼 급격히 바뀌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가나안 땅에 사는 유력한 사람의 자녀들과 혼인하는 일이 있었고, 젊어서 취한 아내를 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씨름한 것도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라기 2장 후반부에서도 바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말라기의 셋째 변론은 혼인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서 세 가지 주제어를 사용합니다. 첫째 주제어는 ‘하나’ 입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에게 적용하여서 ‘하나’ 라는 말을 두 번 사용하고, 15절에서는 부부 관계에서 ‘하나’ 라는 말을 두 번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사실과 부부가 하나라는 사실을 서로 연결하여서 불신 혼인과 이혼의 문제를 풀어 가고 있습니다. 둘째 단어는 ‘궤사’ 혹은 ‘배신’ 입니다. 하나 됨을 깨는 것이 바로 ‘배신’ 입니다. 말라기 2장에는 배신한다는 말이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셋째 주제어는 ‘언약’ 입니다. 10절에서 “우리 조상의 언약” 을 더럽히는 것에 관하여 말하고 14절에서 “네 언약의 아내” 를 배신하였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 사이에 증인이 되시는데 그것을 깨뜨린 행위를 책망하십니다.

말라기 2장에서는 부부의 하나 됨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사실과 붙여서 설명하고,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배신’ 이라고 하면서 책망하시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불신자와 혼인하는 일도 많고 이혼하는 일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혼인하기도 하고 젊어서 언약을 맺은 자와 이혼하기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아름답게 발전하지 못하고 깨어진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사실부터 시작하여 그들의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불신 혼인과 이혼이 많은 우리 사회에도 주님께서 하나 됨의 비밀을 알려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 됨의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가르치시려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 1. 한 분 하나님의 언약과 유다의 두 가지 배신 (10-14절)

#### 1) 한 분 하나님의 언약과 형제 사랑

10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한 분**이 아니냐?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우리는 각각 자기 형제를 **배신**하여  
 우리 조상의 **언약**을 더럽히려 하는가?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방 여인과 혼인하거나 젊어서 혼인한 아내와 이혼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왜 불신 혼인하느냐, 왜 이혼하느냐 하면서 바로 묻지

않으십니다. 말라기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한 분이 아니냐?” 하고 선언하는 것으로 말을 시작하고,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느냐?” 하고 보충해서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불신 혼인과 이혼하는 현실에 대한 해결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전제하고서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출 4:22) 하고 선언하시면서 그들을 내어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재 창조하여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사 43:1; 63:16).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와 한 분 하나님의 지으신 바’ 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함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 분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형제가 됩니다. 10절을 보면 ‘우리 모두의 아버지’와 ‘각각 자기 형제’라는 말이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알려 주신 것은 우리가 서로 형제로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131편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며,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각각 자기 형제를 속이고 배신하는 것은 ‘우리 조상의 언약’을 더럽히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셨을 뿐 아니라 시나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바로의 종 되었던 그들을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면서 그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높이고 사는 일이 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조상의 언약을 더럽히는 일이 되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말라기 2장에서 이야기하는 형제는 특히 ‘아내’를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형제를 배신하는 이야기가 아내와 이혼하는 것으로 좁혀집니다. 말라기는 먼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사실과 우리가 형제가 된 것을 이야기한 후에 언약의 맥락에서 이혼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혼을 개인적인 문제로 다루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 우리가 형제인 것을 기초로 하여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 2) 이방 신의 딸과 혼인하여 배신한 유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심 (2:11-12)

### 11 유다는 배신하였고

가증스러운 일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발생하였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소를 유다가 더럽히고  
이방 신의 딸과 혼인하였기 때문이다.

### 12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일깨우는 자든지 응답하는 자든지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 버릴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는 데에서 끊어낼 것이다.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였고, 가증스러운 일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가증스러운 일은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소가 더럽힘을 받았습니다. 성소가 더럽힘을 받는 일은 이방 신의 딸, 곧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과 혼인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일과 우상 숭배가 연결되는 것은 솔로몬의 예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매우 지혜로운 왕이었으나 그가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혼인한 결과 우상 숭배하는 데에 떨어졌습니다.<sup>1)</sup>

여호와께서는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과 혼인한 자는, 적극적으로 일깨우면서 행하는 자든 거기에 응답하는

1) 여호와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것을 엄하게 금하셨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로 들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출 34:11-16; 신 7:3-5). 이방인과 혼인할 때 그 신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경고를 피하지 못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활동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동일한 문제로 씨름한 것을 볼 수 있다(에스라 9-10장; 느헤미야 13:23-27).

자이든 모두 징계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을 일깨우는 것이나 거기에 응답하는 것은 모두 언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방 여인과 혼인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불신 혼인과 우상 숭배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고후 6:14-15). 그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과의 관계도 끊어버리실 것입니다.

### 3) 유다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들의 배신 때문임 (2:13-14)

- 13 너희는 또한 이러한 일도 행한다.  
 여호와께서 제물에 더 이상 주목하지도 않고  
 너희 손에서 기쁘게 취하시지도 않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와의 제단을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덮고 있다.
- 14 너희는 “왜 그렇습니까?” 하고 말한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와 너 사이에서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는 너의 동료이고 네 **언약**의 아내이지만  
 네가 그를 **배신**하였다.

여호와께서 형제를 배신하고 이방 신의 딸과 혼인했으면서도 제사를 지내는 자들을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내겠다고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제물을 바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제물에 더 이상 주목하지 않고 그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을 드려도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뻐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처럼, 조상들의 언약을 어긴 이 사람들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가인처럼 더 큰 죄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제물을 받지 않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와의 제단을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덮어 버렸습니다.<sup>2)</sup> 그 울음은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와의 제단을 덮어도 여호와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렇게 따지듯이 묻는 것을 보면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제물은 계속하여 드리고 눈물과 울음과 탄식의 행위는 하면서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아주 완고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완고한 백성을 여호와께서는 그냥 내치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물리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상황에 맞게 말씀해 주십니다. 특히 아내를 세 가지 용어로 표현하면서 아내가 얼마나 귀하고 친밀한 존재인지를 알려 줍니다.

첫째, ‘젊어서 취한 아내’ 라는 말을 연거푸 사용하십니다(14, 15절). 여호와께서는 젊었을 때에 혼인하여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면서 가정을 세운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혼인한 후에 아내와 함께 수고하여서 어느 정도 지위에 오르게 되면 늙어버린 아내 대신에 젊은 여인을 취하기도 합니다. 아내와 함께 일군 자기의 지위와 힘을 다른 젊은 여인을 찾는 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중년 남자가 자기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젊은 여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조강지처(糟糠之妻)를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현지의 유력한 사람의 아내, 곧 이방인 지도자의 딸과 혼인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방 신의 딸과 혼인하다가(2:11) 더 나아가서 젊어서 취한 아내와 이혼하는 데로 발전하였습니다(2:14).

둘째, ‘동료’ 라고 표현합니다. ‘동료’ 혹은 ‘짝’ 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부부는 한 몸으로서 한 믿음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2) 혹시는 여인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가리키는 것도 될 수 있다. 그들이 제단에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물을 보신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문맥은 참된 회개를 거부하고 종교 활동만을 하는 완고함을 고발하고 있다.

이혼한다는 것은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셋째, ‘네 언약의 아내’ 라고 부릅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를 배신하는 것은 단지 두 사람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어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혼인의 증인이 되셨으므로 혼인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은 심각한 일이 됩니다. 말라기에서는 이혼을 지적하면서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혼인의 서약을 무시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서 하신 일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각하게 보십니다. 이혼은 단지 아내와의 언약을 어긴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어겼으면서도 계속 종교 행사만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서는 하나님을 만드신 뜻을 알려 주시면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지적하십니다.

## 2. 하나님을 만드신 뜻을 알려 주시고 배신하지 말라고 책망하시는 여호와 (2:15-16)

- 15 그분에게는 영이 많이 있으나  
오직 하나만 만들지 않았느냐?  
어찌 하나만 만드셨느냐?  
경건한 후손을<sup>3)</sup> 찾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영혼을 지키고  
아무도 젊어서 취한 아내를 배신하지 말라.  
16 “나는<sup>4)</sup> 내보내는 것을 미워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는 자기 옷을 폭력으로 가리는 자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영혼을 지키고  
배신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는 창세로 돌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신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한 남자에 대하여 한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태어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경건한 후손’ 이라고 번역한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후손’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인한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닮은 자를 이 세상에 보내려고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내리신 여호와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를 통하여 언약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과 혼인하면 하나님을 닮은 자들을 생산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도를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날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너희의 영혼을 지켜라. 아무도 젊어서 취한 아내를 배신하지 말라” 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뜻을 알고 그들의 영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영혼이 갈등하는 것을 보고서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를 버리고 더 젊은 여인에게로 향하는 마음을 품어 배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sup>5)</sup>

16절에서는 그들의 영혼을 지키는 일과 반대가 되는 일을 두 가지로 지적하십니다. 첫째, 아내를 내보내는 것, 곧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1:2) 그러한 미움을 아내를 내버리는 자에게 쏟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혼인에 증인이 되시는 여호

3) 직역하면 “하나님의 후손”이다.

4) ‘나는’은 문맥에서 첨가한 것이다. 많은 번역본이 ‘나는’을 첨가한다. 3인칭 단수 주어를 ‘하나’로 보아서 “하나이신 분은 내보내는 것을 싫어하신다”로 옮길 수 있다(앤드류 힐, 『말라기』, 444-446). 혹은 “(자기 아내를) 미워하고 이혼하는 자는 자기 옷을 폭력으로 가리는 자이다” 하고 옮길 수도 있다(NIV, ESV).

5) ‘영혼’(루아흐)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한 영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한 남자에게 주신 한 여인을 ‘그의[네] 영혼’으로 지키고 보호하라는 뜻으로 읽을 수도 있다. 16절에서는 ‘너희의 영혼’이라고 복수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가리키는 말로 직접 대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1) ‘영혼’(루아흐)가 아내를 가리키고 (2) ‘너희’로 전체에게 이야기한 것이 개인적으로는 ‘너’가 되기 때문에 단수와 복수의 차이를 근거로 ‘그의 영혼’이 아내를 가리킬 수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와게서는 혼인이 깨어지는 것을 그렇게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둘째, 아내를 내보내는 자는 자기 옷을 폭력으로 가리는 자라고 하십니다. 이 구절에서는 폭력을 옷으로 가린다는 말이 아니라 폭력으로 옷을 가린다고 표현합니다. 폭력으로 옷을 가린다는 것은 옷 위에 폭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폭력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라멕이 “아다와 실라여” 하면서 두 아내를 위협하고 살아간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폭력으로 위협하면서 살아가는 그 가정의 모습은 짐승의 세계와 같은 것입니다.

결론으로 그들의 영혼을 지키고 배신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그의 영혼을 지키면서 언약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한 분으로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사실을 생각하면서 젊어서 취한 아내를 동료로서 사랑하라고 권고합니다.

#### 4. 하나의 관계와 배신의 현실

##### 1) 하나의 관계

이 문단에는 ‘하나’ 라는 말이 네 번이나 나옵니다(2:10 (x2), 15, 16). ‘하나’ 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사실과 부부가 하나라는 점,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은 경건한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을 강조하여 가르쳐 줍니다. 부부의 하나 됨은 하나님의 하나 되심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혼인 관계에 신실한 것은 하나님의 경영에서 필수적입니다.

부부의 하나 됨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 됨을 반영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하나 됨을 이야기하는 위대한 신비입니다(엡 5:31). 이혼은 이 위대한 신비를 부인하는 것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혼인의 서약이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는 것이고, 이것을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를 듣지 않으실 정도로 싫어하십니다.

##### 2) 배신의 현실

배신이라는 말이 또한 여러 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한 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들은 형제들을 ‘배신’ 하여 조상과 맺은 언약을 더럽혔습니다(2:10). 유다가 ‘배신’ 하여 가증한 일을 성전에서 행하였습니다(2:11).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젊어서 취한 아내를 ‘배신’ 한 사실을 지적하고(2:14, 15), 결론적으로 자기 영혼을 지켜서 ‘배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2:16). 언약을 어기는 배신은 하나님을 향한 것인 동시에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성전을 더럽힌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는 일이며 동시에 젊어서 취한 아내와 맺은 언약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젊어서 취한 아내와 맺은 언약을 배신하는 것을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언약을 어기는 것을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시고 그러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베드로 사도도 아내와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라고 권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벧전 5:7).

우리 주위에는 배신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어기면서 배신하고 다른 형제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그 동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배신을 많이 하였을까요?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유력자와 혼인 관계를 맺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약해지고 그 결과 이방 여인과 혼인하거나 젊어서 취한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동기들로 인하여 혼인의 규례는 뒤로 밀려난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사실과 부부가 하나라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혼인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를 중요

하게 말합니다. 혼인이 매우 늦어지거나 이혼율이 급격히 높아진 데에는 이와 같은 요인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재물을 섬기기 때문에 가정 생활도 재물을 기반으로 세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면, 배신의 현실이 우리의 주위를 두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사회는 큰 어둠 속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 3) 가정 회복의 복음이 다른 사람을 초청하게 함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정치적인 주권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도 부족함이 생겼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폐해질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중심으로 올면서 제사를 드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서는 그러한 제사를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신 사실은 가정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려 주고 부부가 하나라는 사실을 알려 주셨습니다. 부부의 사이가 언약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이 모든 회복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큰 말로 대답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한 분이시고 전체이시며 우리의 사회에서 그 사실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창조 때에 제정하신 혼인 제도와 언약의 자녀에 관한 약속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 가십니다. 우리는 크고 기이한 일을 힘쓰기를 좋아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아이와 같은 심정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면서 나아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경제적인 이유로 혼인을 늦추거나 혼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재물을 섬기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하나 됨으로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됨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 됨을 나타낸다는 진리를 사모하여서 혼인에 관하여서도 더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혼인과 이혼에 관한 말라기의 교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더 생각합니다. 첫째, 혼인은 반드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혼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방 혼인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젊은 사람이 혼인 대상을 찾을 때에는 반드시 한 분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는 사람 중에서 찾아야 합니다. 같은 믿음 안에서 혼인 대상을 찾으면 자연히 경제적 이거나 사회적인 요인을 작은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과 혼인하기도 하고 이혼도 쉽게 하지만, 그러한 일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 됨을 나타내려는 소원을 품고 혼인에 임합니다. 그러한 부부에게는 경제적인 요인이 지배적이지 않고 제자리를 찾는 것이 됩니다. 그러한 젊은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혼인이 깨어진 사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사실은 우리에게도 넓은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이혼이나 폭력 등으로 가정이 깨어져서 다른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가 끊어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서로 찾지도 않고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간음한 나라를 찾아오셔서 한 분 하나님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들려 주십니다.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도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나 설명이 아니라 이러한 따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라는 고백을 서로의 관계에서 잘 나타내고 나아가면 우리가 창조의 본의를 잘 구현하고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는 데에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응답송: 45편 1, 4절, 간주, 6절